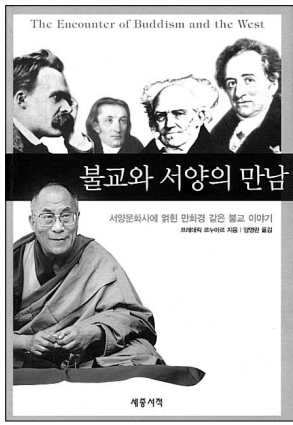


서양문화에 비친 불교의 다양한 모습



서양에서의 불교는 시대에 따라 그리고 그 불교를 발견한 서양인이 누구냐에 따라, 그 사람의 관심사와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아 다르다 해서 퇴폐적인 기독교 사상, 절망적인 허무주의, 합리주의, 무신론적 신비주의, 또는 하나의 철학이나 삶의 지혜, 현대적 인문주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되었다. 오늘날에 와서는 학문적인 연구 덕분에 불교가 훨씬 정확하게 알려지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알아온 종교 편력, 지식수준, 정치적 신념 등에 비추어 불교에 대한 각자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불교와 서양의 만남>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서부터 중세,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양 문화에 얽힌 불교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다.

이 책은 불교와 서양의 만남이 지니는 의미를 오랜 시간 연구해 온 프랑스의 사회학 박사인 프레데릭 르누아르가 지은 것으로, 저자는 현재 프랑스 사회과학대학 소속 종교문제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24% 가량의 유럽인이 명상, 업과 윤회를 믿고 실제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저자는 1992년 "왜 서구 사회가 갑작스럽게 불교에 심취하게 되었으며, 불교 중에서도 특히 선불교와 티베트 불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것일까? 이는 단순한 유행인가 아니면 불교가 서양에 전

'불교와 서양의 만남'

프레데릭 르누아르 지음 / 양영란 옮김
세종서적 / 1만2천원

'19세기의 엄세주의=불교' 이해 잘못 지적 '인간 내면 성찰 종교' 인식되며 각광받아

점으로 뿌리 내리고 있음을 의미하는가?" 등의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불교에 관심을 보이는 프랑스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불교와 서양의 만남을 역사적 사실들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피타고라스 원리로부터 그리스인들의 윤회설에 대한 믿음, 로마제국의 다신 숭배, 플라톤 사상과 스토아학과 등 그리스·로마 종교와 학문에서 발견되는 인도의 흔적을 통해 불교가 동방의 그리스 문화에 끼친 영향력의 정도를 지적한다. 또 헬레니즘 시대에 중앙아시아 지역인 간다라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스 문명과 동양의 불교문화 사이의 융합을

실례를 들어 이야기하기도 한다. 또한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와 같은 철학자들에게 의해 잘못 이해된 불교에 대해서도 짚고 있다. 불교 사상과 매우 유사한 사상을 전개한 쇼펜하우어의 저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1818년)로 인해 19세기 초 불교에 관심을 가졌던 유럽 지식인들은 쇼펜하우어의 극단적인 엄세주의와 불교를 혼동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지적한다.

19세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붓다의 낭만적인 삶과 티베트의 신화에 이끌린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불교 열기가 일어난다. 당시 지배적이던 과학주의와 합리주의에 대항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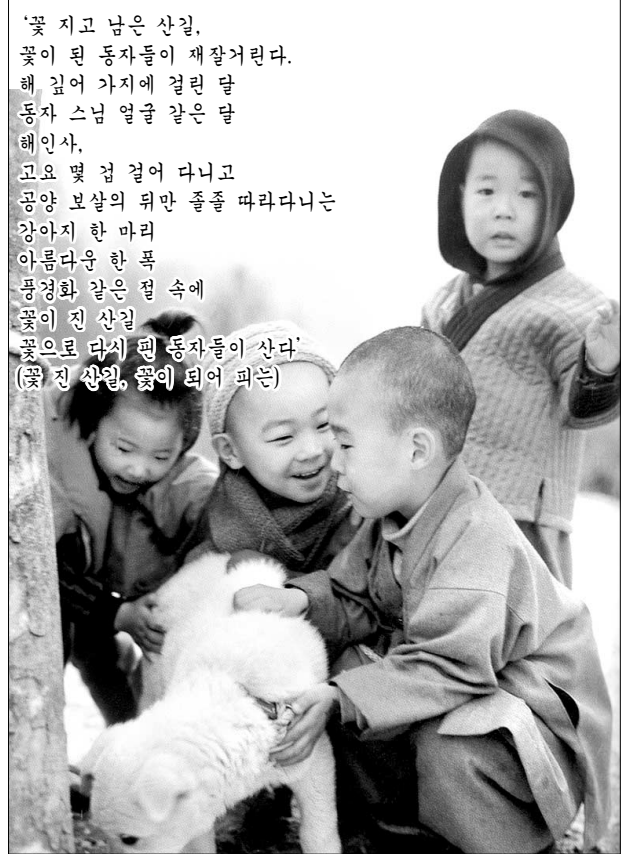
"새로운 유럽 불교의 가능성...극도의 위험성." 프리드리히 니체
"불교는 현대 과학과 양립 가능한 유일한 종교이다."
앨버트 아인슈타인
"붓다는 실제적으로 하나의 철학을 상징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는 인간들에게 도전하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칼 구스타브 융
"붓다는 기독교와 대적할 만한 마지막 종교적 정신의 구현이다."
로마노 과르디니
"불교와 서양의 만남은 20세기의 가장 의미심장한 사건이다."
아돌프 토인비

기 위해 등장한 비교주의의 물결을 타고 불교는 서서히 서양인들의 집단 상상체계 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당시 서양인들에게 인식된 불교는 티베트 불교가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불교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술주의, 실용주의, 상업주의 등 당시의 지배적인 경향에 반기를 든 소위 반문화 움직임의 여세를 타고 서구 종교 분야에 확실하게 자리잡는다. 이 무렵의 불교는 지적 또는 비교주의적 관심의 대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포함하는 실존주의적 영적인 재발견의 대상이었다. 그 후 약 20년 사이에 서양인들을 위한 수많은 명상소와 수도원이 생겨났으며, 이러한 곳에서는 경전과 입문서 등의 책자를 번역하기도 하고, 이른바 서양 출신 불교 성직자들을 양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저자는 불교가 서구인들에게 각광받는 이유로 문예부흥 시대 이후로 서양 사회가 안고 있던 세 가지 억압, 즉 인간 정신이 지닌 상상력 비합리성에 대한 억압, 삶의 의미에 대한 개별적인 의문에 대한 억압, 외부 세계로의 탐험을 위해 인간 내부의 내면적인 성찰에 대해 가해진 억압에 대해 나름대로 해답을 제시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이은자 기자 elee@buddhapia.com



샘물같은 동자승 이야기

'얼굴' 이지엽·정성욱 글 신난만한, 찌든 세상의 일그러진 마음을
최옥수·배홍배 사진 흘릴 다 털어 내주는
고요아침 / 9천9백원 부처 같은 동자승들

의 모습. <얼굴>은 바로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다.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축막리 산골마을의 백화도랑 해인사에서 주지 무학 스님과 살아가는 일곱 동자승의 일상을 시와 사진으로 담았다. 거짓말을 잘 해 참회 중인 성근스님(8), 띄엄띄엄 한글을 읽는 아기 부처 대한스님(8), 할머니도 호통치고 쫓아 버리는 성철스님(6), 얼굴이 유달리 까만 석철스님(7),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때놓고 간 병기스님(6), 마구 때리고 부수는 성진스님(5),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정성스님(4) 등 이런 저런 이유로 부모와 이별했거나 집에 맡겨진 아이들이 무학 스님을 만나, 머리 깎고 승복 입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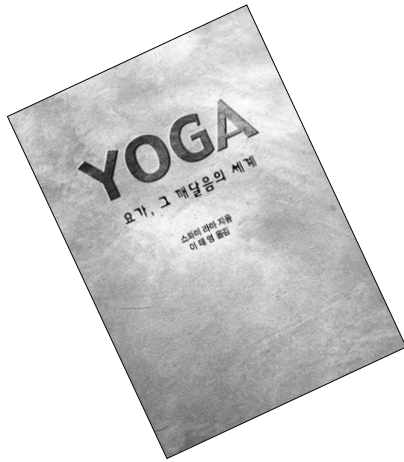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 소개

요가책 2권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수행법

'요가, 그 깨달음의 세계'

스와미 라마 지음 / 이태영 옮김
여래 / 8천원



<요가, 그 깨달음의 세계>는 세계적인 영적 단체인 '요가과학과 철학의 히말라야 연구소'를 세우고 활동 중인 인도의 스와미 라마가 히말라야 요가학회의 세미나 기간에 강의한 내용을 그대로 풀어쓴 책이다.

이 책은 어떤 수행법 또는 영성개발법이 자신에게 좋은지 알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깨달음으로 가는 중요한 방법들을 소개한다. 단순히 요가의 자세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 수양뿐 아니라 육체까지 함께 수련하는 요가 수행법에 대한 이론서라 할만하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만 수행법을 선택하기 위한 준비이고, 나머지는 모두 요가의 중요한 수행법을 설명한 것들이다. 자기의 타고난 성향과 재능을 알아야만 자기 자신의 기호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수행법을 선택하고 실

행할 수 있다. 수행법에 관한 스와미 라마의 명쾌하고 심오한 강의는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진지한 수행자에게 영감을 주고, 깨달음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가 강의한 이 요가 수행법의 자료와 내용은 주로 직접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요가연수원을 운영하며 후진양성과 요가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이태영 박사가 번역했다.

'티벳요가 콤피니'

차르탕 퉁구 린포체 지음 / 박지명 옮김
하남출판사 / 1만원

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콤피니(kum nyel)는 요가와 기공의 핵심을 표현한 독특한 이완법으로 볼 수 있다. 동작과 호흡을 통해 느낌으로써 몸의 감각을 일깨우는 것이 콤피니의 핵심이다.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고, 우리 육체의 감각을 재생시켜 집중력을 높여주고 에너지를 증진시켜 긴장을 제거하는 수행법이다.

이 책의 저자인 타르탕 퉁구는 티벳의 가장 크고 오래된 님마파의 린포체(환생자)이다. 1973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님마 연구소를 설립해, 서구인들에게 가르침을 펼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완과 마사지, 그리고 님마파에서 전해 내려오는 여러 가지의 독특한 자세들을 현대화시켜 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47개의 동작을 7여 컷의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하여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금주의 베스트북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감산사전	감산 스님	여시아문
2	화	틱 낫 한	명진출판사
3	한영불교사전	서광 스님	불광
4	화엄경	법정 스님	동쪽나라
5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달라이라마	김영사
6	불자의 살림살이	우룡 스님	효림
7	옷깃을 스치는 인연	정 천 경	동남출
8	아비담마길라잡이	각목 대님	초기불전연구소
9	역사속의 한국불교	이이화	역사비평사
10	지허스님의 차	지허스님	김영사

도서 안내: (02)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고요아침 전화: (02) 322-0036 팩스: (02) 322-3674 홈페이지: www.oachim.co.kr 도매일원화(주)한국출판유통 전화: (031) 945-2900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바라만 보아도 편안하다

KBS 인간극장 5부작
MBC 아주특별한 아침 방영!

산사의 샘물처럼 맑은 동승의 얼굴,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바라만 보아도 마음의 때가 벗겨지는 천진난만한 얼굴, 찌든 세상의 마음을 흘릴 다 털어 내주는 작은 스님들의 부처 같은 얼굴, 꽃보다 아름다운 작은 스님들의 산사이야기. 사람은 환생할 수 있을까. 돌아간 성철 큰스님과 성철동자의 아름다운 인연. 그 동자가 살고 있는 백화도랑 '해인사' 일곱 동자와 무학스님의 살아가는 이야기

♣ 이 책을 사면 마음의 평화가 오고 선재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동자승 이야기

얼굴



이지엽·정성욱 글
울림라! 값 9,900원

무심 경허 큰스님의 유일한 법어집
비바람 눈보라치는 텅빈 산, 북은 울어도 한 지 걸림도 없이 문장 구절 구절마다 경허 스님의 글은 민첩이요 시이다. —종양일보 경허 큰스님 지음 | 번역서 정경 | 값 8,500원

마음꽃 경허 큰스님이 던져주는 마음의 화두
"마음꽃은 보름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스스로를 닦는 데 큰 도움이 될 책이다. —조선일보 (편집자 리터) 경허 큰스님 지음 | 값 11,000원

표절 성철, 만해, 경봉, 효봉 스님이 나는 편지
"편지는 있는 그대로, 말없이 이면 근대 불교사의 증언이다. —종양일보 경허, 만해, 경봉, 효봉 스님 지음 | 값 9,500원